

통 큰 딸들이여, 세상을 움직일 쇼를 하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10대 소녀들의 59%가 성형을 원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하여, 식이장애 환자들 가운데 10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 현재는 40%에 이른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식이장애는 소녀들의 생식발달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며, 과도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S라인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와 미용성형이 오늘 우리의 딸들에게 '부과된' 화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을 위한 성형 대열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이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외모도 실력'이라는 언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외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선전은 통통하거나 뚱뚱한 여성들에게 심지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인간이라는 낙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며,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한국여성재단은 이 물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모여 해답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답은 다름 아닌 '당당한 자존감과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5 코리아 빅 우먼 패션쇼"로 드러났습니다. 외모지상주의를 과감하게 거부한 여자들의 유쾌한 쇼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에까지 집중 조명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준비한 통 큰 여자들의 신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10대에서 4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통 큰 엄마와 언니, 그리고 명랑 딸들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딸들이 제 몸에 부과된 억압의 틀을 깨고 건강하고 즐겁게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마다의 모습을 존중하고 상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통 큰 여성들로 발전하여 새로운 사회적 에너지를 창조해내길 바랍니다. 안으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분출되는 에너지. 그야말로 삶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활기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 곳곳에 살아나도록, "통 큰 딸들이여, 세상을 움직일 쇼를 하라!"